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년 11월 0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스포츠서울
대 표 이 사 : 유지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에이스하이테크시티1동5층)
(전 화) 02-2001-0062
(홈페이지) <http://www.sportsseoul.com/company/21/>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손용빈
(전 화) 02-2001-0079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0기 임시)

주주여러분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사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7년 11월 24일(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층 회의실

3. 회의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가. 감사의 감사보고

(2)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사외이사 이정교 선임의 건

- 제2-2호:사외이사 김광희 선임의 건

- 제2-3호:사내이사 김영삼 선임의 건

- 제2-4호:사내이사 강권구 선임의 건

- 제2-5호:사내이사 손용빈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제3-1호 : 감사 윤주환 선임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 회

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
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1월 09일

주식회사 스포츠서울
대표이사 유 지 환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유지강 (출석률: 70.58%)	김관민 (출석률: 100%)	김경록 (출석률: 61.54%)
			찬 반 여부		
1	2017.04.03	임원보수 책정의 건	찬성	찬성	-
2	2017.04.05	타법인주식 취득의 건	찬성	-	-
3	2017.04.06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일부 변경의 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일부 미납의 건	찬성	-	-
4	2017.04.17	제1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찬성	찬성	-
5	2017.04.27	자회사 설립의 건 제3자배정 유상증자(소액공모)에 관한 건	찬성	찬성	-
6	2017.05.0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에 대한 감사의견 보고	찬성	찬성	-
7	2017.05.15	제3자배정 유상증자(소액공모) 일부 일정 변경의 건	찬성	찬성	-
8	2017.05.31	이사후보자 확정 정관일부 변경(안)취소의 건 제1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내부정보관리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
9	2017.07.03	타법인 출자의 건	-	-	찬성
10	2017.07.24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주주명부 폐쇄의 건	찬성	-	찬성
11	2017.08.01	제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담보제공의 건	찬성	-	-
12	2017.08.17	제1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안) 확정 제2호의안 : 이사후보자 확정	찬성	-	찬성
13	2017.08.25	(주)제피로스 보증채무이행 합의의 건	-	-	찬성
14	2017.08.28	자회사 설립의 건	찬성	-	-
15	2017.09.01	타법인 출자의 건	-	-	찬성
16	2017.09.04	타법인 전환사채 인수의 건	-	-	찬성
17	2017.09.12	타법인 출자의 건	-	-	찬성
18	2017.09.13	타법인 전환사채 인수의 건	-	-	찬성
19	2017.09.15	유상 신주발행(일반공모)의 건	-	-	-
20	2017.09.28	(주)스포츠헌비앤티 자본감소 승인의 건 임시주주총회 일정 변경의 건	-	-	-
21	2017.09.29	유상 신주발행의 건(일정변경)	-	-	-

※ 김관민 사외이사 사임, 김경록 사외이사 선임(2017년 6월 15일)

※ 유지강 사외이사 사임(2017년 9월 13일)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내부통제위원회	김관민 사외이사 유지광 사외이사 손용빈 이사	2017.04.03	타법인주식 취득의 건	승인
		2017.04.24	제3자배정 유상증자(소액공모)에 관한 건	승인
		2017.04.24	자회사 설립의 건	승인
		2017.06.29	타법인 출자의 건	승인
		2017.07.24	제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승인
		2017.07.24	담보 제공의 건	승인
		2017.08.22	(주)제피로스 보증채무이행 합의의 건	승인
		2017.08.22	자회사 설립의 건	승인
		2017.08.28	타법인 출자의 건	승인
		2017.09.01	타법인 전환사채 인수의 건	승인
		2017.09.07	타법인 출자의 건	승인
		2017.09.07	타법인 전환사채 인수의 건	승인
		2017.09.12	유상 신주발행(일반공모)의 건	승인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2	1,000,000,000	24,000,000	120,000,00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대한제지(거래처)	신문용지매입	2017.4.1~2017.06.30	4	11.85
서울신문(거래처)	외주인쇄비	2017.4.1~2017.06.30	3	8.57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미디어사업

(가) 산업의 특성

신문산업은 정보의 대가로 구독료를 지불하는 매체상품시장과 독자의 접근성을 전제로 광고료를 받는 광고상품시장의 2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광고시장은 과거 신문, TV, 라디오, 잡지 등 4대 매체중심의 시장에서 온라인, CATV,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급속히 늘어나는 정보매체의 다변화로 뉴미디어 광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신문은 과거 TV, 라디오, 잡지 등과 함께 4대 매체를 형성해 왔으나, 멀티미디어시대의 도래에 따라 인터넷, 위성TV,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등장으로 그 역할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시대 다양한 정보매체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신문 특유의 "기록성"은 신문만의 고유영역을 통해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신문사업의 주 매출원인 광고매출은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스포츠신문은 국내외 주요 스포츠행사 등의 호응도에 따라 증감되는 기업 마케팅 비용이 매출 변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 국내시장 여건

신문사업은 종편 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시대에 따라 정보매체의 다변화로 종이신문의 대체재가 다양화 되는 등 급속한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신문광고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마이너 신문의 영업환경은 더욱더 어려울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스포츠서울과 경쟁관계에 있는 스포츠연예전문지는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등이 있습니다.

(마) 회사의 경쟁우위요소

신문사업은 브랜드(제호)를 중심으로 구독선택을 하며, 한번 구독하면 지속적으로 구독하는 경향이 있는 경험재로, 브랜드 이미지가 매우 중요시 됩니다. '스포츠서울'은 1985년 매일 1면을 비롯한 주요 지면의 컬러편집과 가로쓰기, 한글전용 등 기존신문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제작으로 업계의 비상한 주목을 받으며 창간하여, 이후 현재까지 스포츠연예전문지로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멀티미디어시대의 도래에 따른 외부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의 결합 등 “통합뉴스룸”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속보기사와 심층기사를 믹스해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2) 홈쇼핑사업

(가) 산업의 특성

1995년 한국홈쇼핑(현. GS홈쇼핑)과 39쇼핑(현. CJ오쇼핑)이 첫 방송을 시작하여, 2001년 후발 3사(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현.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이 TV홈쇼핑시장에 합류하였으며, 2011년 12월 신규사업자인 홈앤쇼핑이 개국하여 현재 6개 회사가 영업중입니다. 홈쇼핑벤처사업은 이러한 TV홈쇼핑사에 제조업체의 상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TV홈쇼핑사 입장에서는 경쟁력있는 제조업체의 상품을 발굴하고 입점시키는 것이 매출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기 때문에 입점에 관한 심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납품심사와 계약을 홈쇼핑사 내부에서 수행하는 것은 처리할 수 있는 계약의 한계가 있고 같은 이유로 제조업체는 홈쇼핑에 직접 납품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 홈쇼핑벤처사업체에서는 제조업체의 상품을 자체적인 심사 후 TV홈쇼핑사에 납품을 대행합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국내 홈쇼핑 산업은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 배경 및 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홈쇼핑 벤처산업 또한 홈쇼핑산업과 비례하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산업인프라면에서 한국케이블 TV방송 가입자는 1,489만명 (한국 케이블 TV협회

홈페이지 참고, 2013년 3월 기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는 1,831만명(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2013년 1월 기준)으로 보급률 기준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발전과, 체계적인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택배회사의 등장, 외곽도로망 발달에 따른 배송시간 단축 등이 홈쇼핑 성공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볼 때 TV홈쇼핑의 주 고객층은 가정에서 구매 결정권을 갖고 있는 주부입니다. 전업주부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부들은 다양하고 유익한 상품 및 생활정보에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가미되어 시각적인 즐거움이 있는 홈쇼핑을 즐겨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상품의 다양성이 증대되면서 남성고객이 확대되고 있으며,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구매패턴은 편리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은 중간유통을 배제한 직거래로 오프라인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30일 이내의 교환, 반품 정책으로 소비자의 신뢰도가 늘어나면서 홈쇼핑 이용률 및 반복구매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홈쇼핑벤처사업은 TV홈쇼핑사를 통해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타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경기상황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비해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므로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 경기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전반적인 경기회복과 소비심리 개선, 스마트 기기 확대 및 인터넷 쇼핑 확산 등으로 국내 유통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라) 시장여건

현재 6개사(현대홈쇼핑, 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홈앤쇼핑)가 TV홈쇼핑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TV홈쇼핑사업의 공공적인 특성상 시장 진입은 관련기관의 승인을 통해 이뤄지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가 승인이 없는 한, 현재 6개 회사의 경쟁 구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는 공인 1등신문사로서 공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있는 프리미엄상품을 기획하고, 각 쇼핑사의 특성을 활용하여 선별 런칭하며, 당사 광고 및 마케팅이 뒷받침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상품으로 빅벤더로서의 입지를 점차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마) 회사의 경쟁우위 요소

홈쇼핑벤더 부문은 당사의 고품격 브랜드 가치는 물론 상품의 소싱부터 기존 벤더사의 운영노하우를 대입하여 우수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마케팅을 통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신상품 개발을 강화하고 선기획 및 완전매입 증대와 독점상품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벤더 파워를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1. 미디어사업

당사 미디어사업부문은 스포츠연예전문지인 ‘스포츠서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서울’은 1985년 매일 1면을 비롯한 주요 지면의 컬러편집과 가로쓰기, 한글전용 등 기존 신문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제작으로 업계의 비상한 주목을 받으며 창간하여, 이후 현재까지 스포츠연예전문지로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다매체시대에 따른 신문시장 위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의 결합 등 “통합뉴스룸”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속보기사와 심층기사를 믹스해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2. 홈쇼핑사업

홈쇼핑벤더사업은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한 후 배송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2012년 5월 신사업분야 홈엔온사업본부가 만들어져 국내 6대 홈쇼핑사는 물론 관계 쇼핑몰에 각종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을 기획하고 브랜드화할 수 있는 상품소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상황, 소비자 관심에 맞는 상품을 기획하며, 언론매체로서의 홍보, 콘텐츠 활용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2017년 06월 30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매출액	매출비중	주요사업내용	구분방법 및 취지
스포츠서울(미디어사업)	3,390	91.32	제품매출외	총매출의 5%이상 되는 사업부문
계	3,390	91.32		

(2) 시장점유율

[미디어사업부문]

각 스포츠 신문들의 정확한 발행부수, 판매부수 및 무가지 부수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3) 시장의 특성

1) 미디어사업

신문산업은 정보의 대가로 구독료를 지불하는 독자를 대상으로한 매체상품시장과 독자의 접근성을 전제로 광고지면제공 대가로 광고료를 받는 광고상품시장 등 두개의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광고 상품시장이 신문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광고시장은 과거 신문, TV, 라디오, 잡지 등 4대 매체중심의 시장에서 온라인, CATV,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급속히 늘어나는 정보매체의 다변화로 뉴미디어의 광고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홈쇼핑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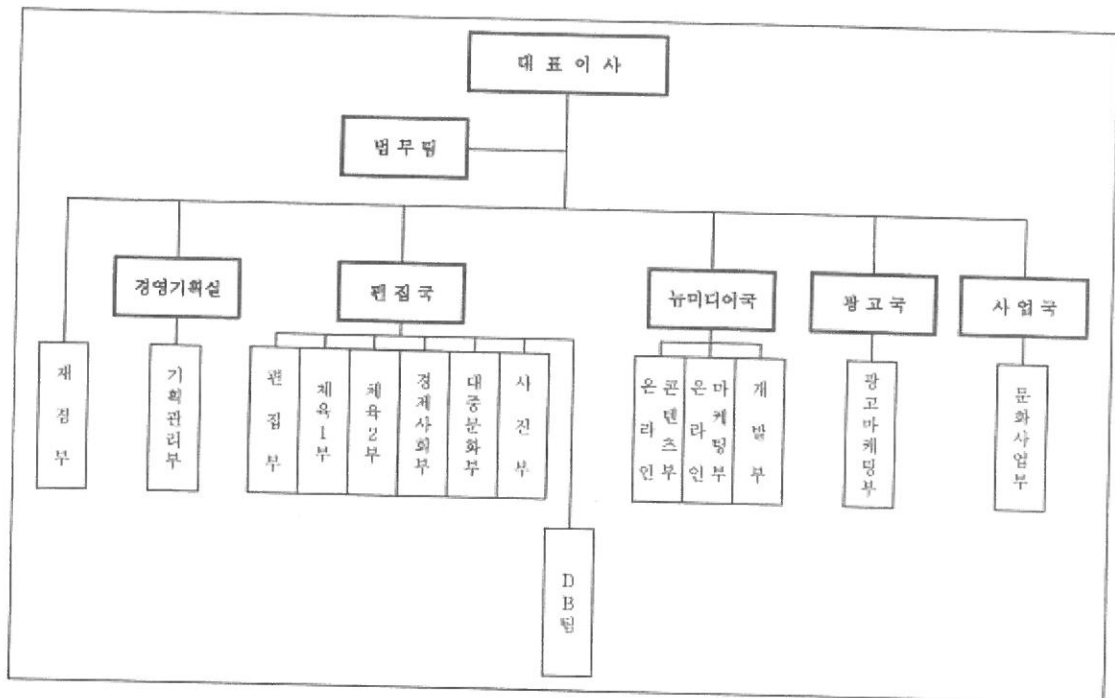
1995년 한국홈쇼핑(현. GS홈쇼핑)과 39쇼핑(현. CJ오쇼핑)이 첫 방송을 시작하여, 2001년 후발 3사(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현.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이 TV홈쇼핑시장에 합류하였으며, 2011년 12월 신규사업자인 홈앤쇼핑이 개국하여 현재 6개 회사가 영업중입니다.

홈쇼핑벤처사업은 이러한 TV홈쇼핑사에 제조업체의 상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업입니다.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4)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13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53. 위 각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제반 사업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152. (생략) 153. 교육소프트웨어사업 154. 모바일교육사업 155. 인터넷교육사업 156. 아카데미사업 157. 문화, 미디어컨텐츠제작사업 158. 위 각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제반 사업	사업다각화
부칙 이 정관은 2016년 04월 0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7년 11월 2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정교	41.04.05	사외이사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김광희	71.09.27	사외이사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김영삼	71.05.08	사내이사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강권구	72.04.20	사내이사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손용빈	74.12.28	사내이사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총 (5)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정교	연합뉴스 이사대우 논설위원실 고문 삼성언론재단 미디어연구실 위원	국민대학교 상학 학사	해당사항없음
김광희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케이엠디홀딩스 기획본부장	건국대학교 학사	해당사항없음
김영삼	(주)비엔코리아 전무이사	중앙대학교 석사	해당사항없음
강권구	(주)파인일렉컴	경문대학교 학사	해당사항없음
손용빈	자산운용협회 기획법규팀 H&CP CFO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해당사항없음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윤주환	69.06.29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현재)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윤주환	하나은행 자산유동화팀 (주)프론티어아이씨티 대표이사	중앙대학교 석사	해당사항없음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명)
-------------	------

※ 기타 참고사항